

“한·브, 35년 우호협력 뒤에는 민간기업의 땀방울이”

〈브루나이〉

대림산업, 리파스대교 완공 후
30km 템부롱대교 올 11월 완공
文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하사날 볼 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수교 후 35년 간 인프라·에너지·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두 정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브루나이의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참여해 브루나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림산업은 브루나이 강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인 리파스 대교를 지난 2017년 10월 완공시켰다. 대림산업은 현재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

를 연결하는 30km의 템부롱 대교 내 해상교량 2개 구간을 공사 중이다. 이 공사는 오는 11월쯤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올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브루나이는 수교 후 지난 35년 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의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특히 국왕님께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적극 기원해 주신 데 대

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브루나이 주력 산업인 에너지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스전 개발·수송·판매 등 전 분야에 걸친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 협력을 강화했다. LNG 밸류체인은 가스 탐사 및 생산,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체계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직항노선 증편 ▲방송매체를 통한 문화 소개 ▲한류 확산 등을 통한 양국간 상호 이해 증가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주 3회인 브루나이 직항노선은 내년 4월부터 주 2회로 증편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과학기술 협력, 투자 협력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빈부차’ 브루나이 동·서 연결… 대림이 건설중

文이 찾은 ‘포용성장의 상징물’
템부롱 대교는 어떤 다리

“동반·포용 성장의 좋은 사례”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우리나라 대림산업이 건설 중인 템부롱 대교를 찾았다. 템부롱 대교는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포용적 성장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찾은 템부롱 대교는 브루나이만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된 국토를 연결하는 2조원대 해상교량 건설사업이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은 템부롱 대교의 핵심구간인 해상공구를 지난 2015년 수주했고,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은 대림산업이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특수장비와 신공법을 통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이 템부롱 대교는 개발지역-저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우리 정부가 줄곧 추구해온 ‘동반성장’과 ‘포용



부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 대교 건설 현장. /대림산업

적 성장’의 좋은 사례다. 가치 있는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끈기와 열정을 통한 신뢰 구축이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은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신남방 지역 수주

액이 전통적 해외건설 시장인 중동지역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시장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해외 현지에 지원센터들을 둬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관계자들에게 건강·안전을 당부하며 현장을 떠났다. /우승준 기자

홍영표,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극찬

“대기업·공공부문 확대 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를 극찬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 원내대표의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발언은 ‘임금체계 개혁’ 부분 등에 등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이 3년 내지 5년 간 임금인상 자체 등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액을 추가해 협력사·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임금체계 개혁의 모범사례로 SK하이닉스를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 발언처럼 SK하이닉스는 지난 2015년부터 노사가 임금 인상분의 20%를 출연해 조성한 66억원을 10개 협력사 직원 약 5000명의 처우개선에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방문해 “(SK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 임금공유제를 도입했다. 노동조합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는 양보와 희생으로 임금공유제에 힘을 보탰다. 노사협력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좋은 시범이 됐다”고 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5대 그룹 중 SK만 거론됐다. /김재웅 기자 juk@

왕실인사·외교단 등 700여명 참석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1일 밤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국빈만찬은 공식수행원을 포함해 브루나이 왕실 인사, 전직 관리, 주브루나이 외교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볼키아 국왕이 2014년 싱가포르 레저에서 언급한 ‘사람 중심의 아세안’에 공감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 역시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때 “볼키아 국왕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브루나이의 독립을 달성하고 전면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브루나이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브루나이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왕궁, 사원 등 빼어난 건축물,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 그리고 최근 브루나이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문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브루나이 역대 왕 역사와 유품 등이 전시된 ‘로얄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는 1984년 독립한 이래 브루나이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온 왕실에 대한 존중의 뜻을 문 대통령이 표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박물관 건물은 당초 볼키아 국왕의 부친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가 쳐칠기념관으로 건설했으나, 1992년 9월 볼키아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현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 박물관의 외관은 황금 돔 형태이며, 내부는 고급 카펫과 대리석으로 꾸며졌다. 또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도 전시됐다. 이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물한 88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 모형이 존재한다.

/우승준 기자

나경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주장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게 저희 안이다. 의원 정수 10% 감축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나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는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나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작년 12월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과기한 것과 다툴 수 있는 내용이다.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독식’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 도입 주장이



오르내렸다. 더욱이나 원내대표는 정치입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17대 국회)로 시작했다. 비례대표 출신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냈단 얘기는다

수 정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낸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중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개혁 역주행’을 통해 여론에 정치 불신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진단이 눈에 띈다. 이 경우, 다른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동력을 상실될 가능성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제동을 걸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비례대표제 폐지’다.

/우승준 기자